

“광주 경제자유구역으로 오세요”

광주시가 주력 산단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24일 신한은행, 광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150여개 지점을 둔 신한은행은 투자기업에 금융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생산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테크노파크는 내년까지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도 수행한다.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이 마련되면 핵심 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해 협약, 실제 투자 등 성과로 이어갈 방침이다.

26일에는 광산구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54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북극기업을 타진하는 22개 기업 등을 초청해 투자전략 설명회를 연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분야 해외 기업에 투자 환경과 산업별 육성정책을 소개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한 외국대사관 경제사무관을 초청해 경제자유구역을 둘러보는 팸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내년 1월 개청 앞두고 투자 유치 활동 본격화
26일 투자전략 설명회·외국대사관 초청 팸투어 계획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경제자유구역 운영·관리와 투자 유치 업무를 총괄할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50~6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 조직을 갖춰 테크노파크 인근 광주 이노비센터에 문을 열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청장은 1급, 본부장은 3급 직위로 임명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에는 고위 간부 정원이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구분 없이 첨단업종에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 투자유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을 세워 800개 기업, 1조6천억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 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에너지 밸리 일반 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도시 첨단 국가산단), 인공지능 융복합지구(첨단 3지구) 등 4개 지구, 4.371km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25전쟁 70주년 육군호국보훈행사 24일 오후 광주 남구 대성초등학교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육군호국보훈행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서육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전거 빌려 타고 목적지서 반납하세요”

광주시 공영자전거 '타랑개' 다음달부터 상무지구서 운영

광주시는 “7월부터 상무지구에서 무인공영자전거 '타랑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200대를 투입하며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 5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자전거 거처대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대여·반납은 상무지구 곳곳에 주차장 표시가 있는 곳이 하면 된다.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는 반납이 되지 않고 3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tarangge.gwangju.go.kr>)와 타랑개 앱(안드로이드·iOS)을 통해 1일권(1000원), 7일권(2500원), 1개월권(5000원), 6개월권(2만원), 1년

권(3만원)까지 이용권 구매가 가능하다. 1회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으며, 90분 이내에 반납하고 재대여하면 추가 요금은 없다. 단 90분을 초과해 이용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최초 1회 등록한 후에는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카드 접촉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교통카드 등록은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하고, 타랑개 운영센터(373-0740)에서도 할 수 있다.

타랑개 운영센터 근무자들이 자전거의 정비·오류·정결 상태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소독한다. 이용 중 자전거의 결함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운영센터로 신고하면 보험회사와 연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과장은 “타랑개 이용 시 바구니에 있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경영위기' 버스업체 지원금 90% 상반기 집행

이번주 156억 집행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버스업체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금의 90%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객이 50%이상 급감하면서 버스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과거 분기별로 집행된 버스재정지원금을 업계의 유동성 위기와 종사자의 생계 안전을 위

해 상반기내 9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이번주 집행할 금액은 156억 원으로, 지난 4월까지 지급한 205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버스재정지원금 401억원의 90%에 달한다. 이는 통상 분기별 25%씩 나눠 지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40%나 더 많은 금액이다. 또 전남도는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억7000만원에 달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재정지원금 지원도 꾸준히 건의해왔다.

최근 전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분석

결과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전남 버스업체의 매출액은 4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과 수입과 비교해 43.3% 감소한 수치로, 현재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누적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의 특성상 수요 증감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운행에 나서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발생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 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피

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도 은행 대출로 공공채 만성 적자구조에 놓인 버스업체는 이용이 어려워 경영난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버스업체는 감회 운영을 비롯 최대 50%에 달한 급여 삭감과 휴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돼 사태 장기화 시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일 버스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버스업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지사 품질인증' 406개 제품 선정

전남도는 지난 23일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등에 대한 올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해 109개 업체 406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정된 제품들은 지난 5월 신청을 받아 교수와 소비자연합, 식품명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류와 현장 심사와 함께 '전남도 통합상표 심의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제품은 곡성 농협회사법인 사항가의 '사항가 탁주'를 비롯 강진 참종은된장 강진토하젓의 '참종은된장', 무안(주)

초록당의 '맑은국양파장', 완도 엄마식품 '명품다시마장아찌'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선정된 업체에게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000만원)와 자가품질 검사비(업체당 250만원)를 지원하고,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은 남도장터와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홈쇼핑, 해외수출 등 매출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29개 업체 1351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지난 2018년말 기준 1조491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신차 교체 뎀 보조금

광주시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모집 대상은 총 109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팔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해 선정·지원하며, 지원신청서는 시청 기후대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일이 같은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량(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 주민과 소통 협의체 만든다

광주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

광주시는 24일 '광주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협의회 운영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광주에서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 주민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 국제 교류 활성화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게 됐다”며 “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담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2만382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밀집 지역인 광산구에 절반인 1만3461명이 등록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NH Nonghyup

한국농협은행(주) 역신 리더

행복로운 농촌, 행복한 삶의 동반자

순천농협

행복한 농업인! | 행복한 고객! | 행복한 동반자!

농업인 편의증진과 농가소득 5만원인 시대 열기 | 최고의 가치실현과 스마트한 금융 시대 열기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순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농업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www.noin.or.kr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육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www.noin.or.kr

☎ 062-232-4953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